

이처럼 그의 예술적 감각은 평범한 제품도 비범하게 만들었지만, 늘 표절 논란에 휩싸였어. 과연 표절로 봐야 할까? 다 죽어가던 발렌시아가를 최고의 인기 브랜드로 만들어낸 데마 바잘리아Demna Gvasalia는 이케아의 99센트짜리 쇼핑백과 똑같은 모양으로 가죽 핸드백을 만들어 발렌시아가 이름으로 2,150달러에 팔았잖아. 얼마 전에는 테스코가 물건 담아주는 공짜 비닐 쇼핑백을 흥내 내 빈티지 백처럼 만들어서 925파운드에 팔았더라. 그것도 표절? 싸구려로 치부되던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창의성은 아니고?

영어의 ‘art’라는 단어에는 예술이란 의미와 기술이란 의미가 혼재돼 있어. 장인처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아티잔(artisan)이라 하고, 예술에 뛰어난 사람은 아티스트(artist)라 하지. 아티잔은 반복 제작을 매끄럽게 잘하는 기술을 인정받는 사람들인 반면, 아티스트는 매번 새로운 걸 생각해내야 칭송받아.

버질 아블로는 너무나 친숙한 제품들에 새로움을 더해 낯설게 만드는 데 천재 같아. 일컬어 뷰자데(Vuja De)라 하지. 이케아 가구, 에비앙 생수, 리모아 가방 등에 무심코 던진 듯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 독특한 제품을 만들었거든. 그의 생각이 이 말에 다 담긴 것 같아. “나는 멋지게 만드는 건 관심 없어요. 그보다는 어떤 물건이 뭔가 말하게끔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죠 (I’m not really into style. I’m more into having something to say).”

결국 그는 루이비통의 아트디렉터가 되어 고루하게 느껴지던 루이비통을 젊게 환생시켰어. 아프리카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유럽 최고급 패션 브랜드의 수장이 된 거야. 그리고는 최고가 패션제품에 스트리트웨어를 접목하는 말도 안 되는 시도에 성공했지.

루이비통은 수많은 디자이너 중에 왜 그를 아트디렉터로 뽑았을까? 그가 디자인을 잘해서라기보다 컨셉을 잘 잡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거야. 옷을 예쁘게 박음질하는 사람더러 창의적이라고 하진 않잖아. 컨셉 잘 잡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하지. 2021년 말,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너무 안타깝더라.

‘브랜드 보이’라는 별칭의 안성은 님이 쓴 《믹스》라는 책에서는 창의적인 컨셉을 구상하는 능력, 즉 크리에이티브를 ‘믹스